

세계는 '환경의 위기'와 한국의 Image 제고하기

대외적으로 한국을 나타내는 이미지

스포츠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은 스포츠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월드컵과 시민사회의 역할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앞으로 160여일이 지나면 2002 한·일월드컵축구경기가 우리나라 10개 도시에서 개최되게 된다. 이 경기는 21세기의 첫 전세계적 스포츠 행사로서 그리고 월드컵사상 두 나라 공동개최의 첫 사례로서 세계가 지켜보게 되어 있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스포츠 제전이면서 문화축제이다. 이 행사는 또한 사회발전의 상승효과를 더하게 하는 국민통합을 이루어 낼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도 수반하고 있어서 중시되고 있다.

근래에 와서 스포츠경기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또다른 관심은 그 행사가 환경친화적으로 준비되고 치루어지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스포츠경기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어서 경기장 마른을 비롯한 시설 설치 등으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불가피하며 자원소비와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 반면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들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며 관람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개최도시들은 감당해야 한다.

1994년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2000년 호주의 시드니올림픽이 친환경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되면서 금번 월드컵은 친환경적으로 치루어져야 한다는 압력이 따르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대회를 위한 '세계환경의 날' Rio Tio이 열리다.)

환경친화적인 스포츠경기란 대회준비기간, 행사기간, 행사개최 후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기 전과정에서의 환경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했느냐에 따라서 평가되게 되어 있다. 평가항목에는 경기장 설계 및 시공, 주변환경정비, 기초시설 설치의 물론 개최도시 전 지역의 환경개선 문제가 포함된다.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쟁점들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지 및 물이용, 폐기물관리, 에너지 관리, 시설이용, 교통서비스, 숙박시설서비스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월드컵, 정보월드컵, 시민월드컵 그리고 지난 9월11일에 일어났던 미국에서의 테러사건 이후 특히 안전월드컵이 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점차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다행이나 환경월드컵이란 그 용어조차 아직 생소한 가운데 월드컵추진 주최측에서마저 이를 외면하고 있어서 우려된다.

월드컵축구대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우리의 우선 관심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경기성적을 거두기 위한 노력이다. 지난번 제주경기장에서 개최되었던 미국팀과의 친선경기 등을 통해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는데 보여준 축구팬들의 열기는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12조원+알파의 경제적 성과와 25만의 고용창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로부터의 축구경기관람자 유치문제에 열의를 다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다. 따라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손님맞이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원욱

이원욱

이원

그 준비란 모든 것을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선수들과 관람자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다. 특히 금번 경기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두 나라의 준비태세와 경기 전과정을 비교 평가한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전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근간에 불거지고 있는 '보신탕'에 대한 논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의 스포츠는 텔레비전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TV로 중계되거나, 보도되지 않는 스포츠는 스포츠로서의 생명력과 경제성이 결여된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다. 2002년 월드컵이 예상하고 있는 직접관람자 수는 170만명이지만 TV시청 관람자수는 600억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세계적인 스포츠행사는 세계의 6억 축구애호가들과 전세계인의 축제이면서 전세계의 언론의 잔치이기도 하다. 그것은 이번 경기를 계기로 세계의 보도진이 대거 우리나라에 몰려올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자명한 것은 언론보도진들이 보도경쟁을 위해 축구경기 자체만이 아닌 기사꺼리를 찾을 것이고 공동개최국인 일본과 비교해서 보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한하지 못한 축구애호가들이 TV를 통해 우리나라를 소개받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것은 이번 평가의 잣대는 '88서울올림픽 개최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인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놀라게 했다면 금번 월드컵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준비와 행사개최로 세계인을 부정적인 측면으로 놀라게 할 수도 있다는 데에서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다.

금번 경기기간동안의 600억명의 TV시청자들은 이번 경기를 단순히 축구대회의 성패만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속에서의 우리나라의 실체를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아 우리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하는 10개의 우리나라 경기개최 도시들에서는 경기장 건설이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 또는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기구들이 구성되어 다양한 준비활동에 들어갔다. 환경월드컵을 위해서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월드컵위원회>등이 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월드컵개최를 위한 전국워크숍, 도시별 워크숍들이 개최되면서 <2002환경월드컵추진전국협의회>도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기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로서는 환경월드컵추진을 위한 과제 개발과 시민참여 방안 모색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유도에 힘쓰는 일 등이다. 환경월드컵은 공중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서, 대중교통수단 편의도모, 친절운동에서 더 나아가서 총체적인 녹색도시만들기와 손님맞이 준비가 되었을 때 성취된다. 그 일은 정부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개최도시 시민의 전적인 참여로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금번 월드컵경기를 환경친화적인 스포츠행사로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시민사회가 총동원되어야 한다.

시민개개인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자원봉사자로서 월드컵경기의 홍보, 각종 캠페인, 경기장에서의 질서유지, 환경관리, 교통질서 유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을 위한 문화활동과 관광안내 등의 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기의 선 자리(가정, 직장, 지역사회)에서 작은 일(쓰레기줍는일, 길안내, 꽃가꾸기, 경관관리, 민박제공)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현재 월드컵조직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수는 12,000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10개 도시에서 응모한 20,864명에서 선발, 훈련한 사람들이다. 결승전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본의 요코하마시가 확보하고 있는 15,000명의 자원봉사자수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개최도시의 시민사회는 다양한 소집단을 구성해서 지역사회 구석구석의 과제를 찾아 책임있게 관리하므로 전 지역사회가 자랑스럽게 손님맞이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느날 신문칼럼에서 '서울, 월드컵도시 맞습니까?'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그가 방문한 일본 동경 근처에 있는 시즈오카시의 잘 되어 있는 도시관리 수준에 빗대어 서울시의 도시관리의 허점들을 질타하고 있다. 이 칼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고 있는 서울은 기본질서가 안되어 있는 것을 비롯 전신주나 건물의 불법광고물과 무질서한 간판들, 건물옥상관리의 허술함, 그리고 구석구석이 쓰레기 불법투기장화 되어 있는 상태는 시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그는 '88서울올림픽에서 발휘되었던 시민정신의 발휘를 다시 한번 다하자고 촉구한다.

지역사회 시민 누구나의 참여로 이루어 낼 수 있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각 개최도시의 2002월드컵대비 지역사회 어메니티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 어메니티란 일반적으로 쾌적한 환경, 삶의 편의 그리고 아름다운 주변환경과 생태경관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의 어메니티의 성취는 정부의 턱없이 부족한 행정요원에게만 의존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일은 시민들이 이웃과 공동으로 또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데 시민정신의 발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메니티에 관한 관심은 내 집 울타리 안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실천을 울타리 밖으로 옮기자는 것이다. 내 집앞을 깨끗이 그리고 아름답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운동의 파장이 그 폭을 넓히면서 전 지역의 어메니티는 개선되는 것이다. 일단 쾌적한 환경이 자리잡으면 그것을 훼손하는 손길도 일단 멈춰서 질 것이어서 어메니티는 지속유지될 것이다.

오늘에 와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중에서도 특히 중국관광인들이 즐겨찾고 있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자연공원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인상깊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공원에 들어가는 길목에서부터 휴지 한 점없이 깨끗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그 많은 남녀노소의 인파가 북적대는 공원안에서도 과자 봉지나 담배꽂초 하나 볼 수 없이 그 넓은 공원이 아름답게,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유지하는데에는 우선 에버랜드 자연공원의 직책의 구분과 고하를 막론한 전 직원들이 항시 집계를 휴대하고 다니다가 눈에 띄는 휴지 등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용자들도 감히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어 그 환경은 항상 깨끗하고 상쾌하게 유지되는 것이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전원도시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나 구라파의 유명한 소도시들이 자기 고장을 그림처럼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데에는 지역 주민 모두가 자기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주변 관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의 공중화장실은 지역주민이 실명제로 관리

하고 있어서 그곳을 지나는 여행객이 화장실을 찾집이나 식당으로 오인하기까지 한다. 미국에서는 가꿀만한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은 지역사회 공원가꾸기를 자원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의 어메니티문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크다.

금번 축구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내한했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빈틈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002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의 열쇠는 개최도시 전시민에게 쥐어져 있다. IMF의 위기극복에 '금모으기 운동'으로 보여주었던 시민사회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다.